

## 태국을 위한 ‘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은 태국의 *Bangkok Post* 2015.5.16일자 신문의 칼럼인 “Time to redefine Thainess for 21st-century success” 를 번역, 편집한 것임.  
필자인 송크란 그라창넷 (Songkran Grachangnetara)은 런던경제대학원과 콜롬비아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업가이다.

태국 정부가 ‘태국적인 것’(Thainess)을 진흥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나라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적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가적 특성이란 것이 우리가 홍보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특성인가?

우리는 태국 문화와 ‘태국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태국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각각 매우 달리 나타난다. 태국 문화는 우리가 모두 매우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무엇이다. 태국 요리는 요리 신들이 준 선물이라고 홍보되고 있다. 타이복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술로 알려져 있다. 타이 마사지와 안마사들은 이제는 하도 인기가 좋아 모든 주요 유럽 도시들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태국 예술가들은 아잔 타완 다차니(Ajan Tawan Dachanee) 같이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날려 왔다. 그리고 태국 역사는 우리의 군주제의 미스터리와 간계 속에 얽혀 많은 픽션과 논픽션 이야기들의 주제가 되어 왔다.

태국 문화가 이처럼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태국을 세계의 인기 좋은 관광지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질투하게끔 만들었다. 그에 비해 ‘태국적인 것’은 우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태국의 어떤 특성들은 우리에게 아주 값진 것이지만, 우리가 베트남 같은 이웃국가들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힘든 경제적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성도 몇 가지 있다.

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85퍼센트 인간’이다. 만약 일이 85% 완전하면, 그것은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완전함을 성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불요불굴의 노력을 할 가치가 없다. 그 증거는 도처에 있다.

우리의 대중교통 전철 시스템인 BTS와 MRT를 보자.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BTS용 티켓은 MRT에서 사용될 수 없다. MRT를 타려고 하면,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려 토큰을 사야 한다. 그리고 BTS는 왜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지폐를 받으면 잔돈을 토해내는 티켓 자동 판매기를 놓지 않는가?

돈므앙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줄서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걸 국가적으로 황당한 일이다. 종종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택시 타기까지 몇 시간 우왕좌왕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두 더해지면 문제가 된다.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은 애쓸 가치가 있다.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인들이나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인들이나 영국해협의 영불 터널을 건설한 유럽인들이나 신칸센을 만든 일본인들은 85퍼센트가 아니었다. 완전함은 근면함과 역경을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무한하다.

태국인들은 또한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치료하는 걸 선호한다.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어도 아무 문제없다. 자전거 면허증을 발행하여 술 취한 차량운전자를 어떻게 피하는지 가르치기만 한다. 강간범들과 조폭 무리들이 따오(Tao)섬 해변을 어슬렁거리도 해법은 간단하다. 모든 관광객에게 전자표식을 붙이고 여성은 비키니 차림을 자제하라고 권유한다.



태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나라가 완전히 찢어져도, 해결은 누워서 떡먹기다. 논란을 불러 일으킬 모든 이슈에 대한 토론과 민감한 논쟁을 금지한다. 정확한 판단을 할 만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시골의 유권자 문제는? 그것도 별 문제 없다. 모두 함께 투표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낙후된 교육체제로 학력이 저하되는 어린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뿌라웃 장군의 12개 원칙을 낭송하거나 수 천 개의 아이패드를 배포하면 된다. 태국인들이 ‘태국적인 것’을 충분히 내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태국인들이 금요일에는 국가적 복장을 입도록 권유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국인들은 보통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 태국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태국은 ‘스마일(smile)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스마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것도 좋다.

이제는 우리가 ‘태국적인 것’을 재정의하고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자. 단순히 스마일로 알려지는 대신 태국을 기회와 공정함과 평등의 나라로 그리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무를 아는 나라로, 또 당신이 열심히 일하

고 규칙에 따라 살면 성공할 수 있는 희망과 고무의 나라로 만들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투자자라고 느끼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미국의 한 정치학 교수가 필자에게 미국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젓자, 그는 그것이 헌법의 첫 단어인 ‘우리’라고 했다. ▣